

12

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

창세기 11:27~12:9



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.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. 아브람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. 어느 날,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.

"너는 네 고향, 친척,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."
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.
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."

아브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.

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
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
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(히브리서 11:8)



12

아브람은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.
그 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.
그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.
아브람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, 그리고 모든 재산과 하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
들어갔습니다.
세겜 땅에서 모레 상수리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"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."

아브람은 그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.



오늘의 공부

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

1.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도시였나요? (여호수아 24:2)

2. 아브람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나요?

믿음의 조상 아브람

1.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람은 어떻게 하였나요? ○표해 보세요.

전 오랫동안 이 곳을 떠나기가 싫습니다. 이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.



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너무 불안합니다. 먼저 제가 갈 곳을 알려주세요.



하나님! 전 제가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.



□□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□□하여¹ 장래²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□□□□□□ 나갔으며 (히브리서 11:8)

¹장래: 다가올 앞 날 ²기업: 대대로 물려받는 재산과 사업

오늘의 말썸을 배우고

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갔습니다

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어느 길일까요? 1~4번 중 가장 올바른 길을 골라 보세요.

1

성경을 읽습니다.



2



친구들과 싸웁니다.

3

몇 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.



4



전도를 합니다.



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립니다.

만화를 계속 봅니다.



친구를 도와줍니다.



열심히 공부합니다.

집에서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.





알아볼까요

갈대아 우르

아브람이 태어나 자란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. 이 도시는 1922년부터 1934년 사이에 울리라는 사람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. 갈대아 우르는 매우 발전한 큰 도시였으며 달과 불 등 여러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었습니다.

이 도시의 골목마다 여러 신을 섬겼던 작은 제단들이 확인되었습니다.

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갔는데,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의 세 배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.

아브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.

부모님
란

선생님
란